

##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한 유 미  
호서대학교 아동학전공

### A Comparison of Two Types of Commuting Family's Child-rearing

Han, You Me

Dept. of Child Studies, Hoseo University, Chonan, Korea

#### ABSTRACT

Due to the changes of modern society, alternative types of nuclear family so called as commuting family have appeared. Also, with the increase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their needs of self-actualization, dual-career commuting family have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the traditional commuting family and dual-career commuting family in terms of family relation, types of child-care and social support. Also, this study qualitatively analysed parenting-guilty of the mothers of commuting family. One eight seven mothers of three to eight year-old participated the survey.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case of traditional commuting family, children cohabit with the mother and usually fathers move between two houses. But among the dual-career commuting family, there are some children who cohabit with the father and some mothers who move. Dual-career commuting family relied on the more types of child-care than traditional commuting family. (2) While traditional commuting family get more support for child-rearing from the husband's family of origin than dual-career commuting family, wife's family of origin provide more support to the dual-career commuting family. The more support the husband's family of origin provide, the more stress both types of commuting family experienc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ort from the wife's family of origin or friends and the stress of the mothers of both types of commuting family. (3) Mothers of two types of commuting families were different regarding the motives of parenting-guilty. Difficulty of caring the children for their job as well as father-absentness makes mothers of dual-career commuting family feel parenting-guilty more.

Key words: commuting family, child-rearing, parenting-guilty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는 가족 형태의 다양성과 기능적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유형의 생활양식을 창출하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핵가족의 주요한 특성인 공동거주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동거 가족의 출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는 이농현상이나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으로 인한 일시적 비동거 가족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남편외유형의 특징을 띠었다. 1970년대에는 중동지역의 건설 붐과 독일 탄광으로의 취업과 같은 해외인력수출정책으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동거 가족이 생겨났다. 1980년대에는 지방산업의 활성화와 행정관청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주말부부가족이 주류를 이루었고, 자녀 양육 및 교육적 여건을 고려해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대도시에 거주하고 남편이 혼자 주중에 지방에서 생활하는 남편외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김태현·박숙자 1992).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말부부는 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것으로 분거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남편의 직업에 의해 결정되는 남편외유형의 홀벌이 주말부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최근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조기유학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 즉, 자녀와 부인을 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고 국내에서 혼자 살면서 학비를 보내주는 가족도 남편외유형 주말부부의 변형으로 분거 기간이 주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또는 1년 이상으로 장기화된 경우로 볼 수 있다(한유미 2003).

이와 같이 전통적인 주말부부가 남편의 직업이나 자녀의 교육 때문에 생겨난 남편외유형의 홀벌이 가족이라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말부부 유형은 부인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결정한 맞벌이 부부들로서 별거왕래형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Goldberg & Meitz, 1985). 맞벌이 주말부부는 통근 결혼(commuter marriage), 두 지역 가족(two-location family), 결혼한 독신(married single), 장거리 가족(long-distance family)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Gross 1980), 경제적 목적보다는 부인의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중시되는 가족 형태로서(김은경 1999) 부부 모두 교수, 법조인, 기자,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이러한 직업적 목표를 추구하는 지방자들이 주종을 이룬다. 즉, 한 지역에서 부부 모두 일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가정 내에서 여성의 독립성이 정당화되고, 개인적 성취에 가치를 두는 개인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출현하게 된 가족 형태인 것이다(Gerstel & Gross 1984). 따라서 맞벌이 주말부부는 이상적인 가족 형태는 아니지만, 가정도 가져야 하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해야 한다는 두 가지 상충되는 문화적 가치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이고도 한시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Gerstel & Gross 1982).

일반적으로 주말부부 가족은 정상 가족에 비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박숙자 1991; 김태현·박숙자 1992), 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이다. 한 배우자는 주중에 독신과 같은 생활을 하는 반면, 다른 배우자는 편부 또는 편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한 배우자의 장점이 다른 배우자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은경 1999). 이러한 입장에서 Gerstel과 Gross(1984)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주말부부 어머니를 ‘편부모’와 유사한 처지로 비유하며, Adams(1995) 역시 주말부부 어머니는 ‘이혼한 어머니와 같은 짐’을 짓게 되며, 이로 인해 자녀도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다. 즉, 자녀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한쪽 부모로부터 애정이나 적절한 통제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주말부부 가족은 부모자녀 관계뿐 아니라 아동의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는 주말부부라는 특수한 상황에 덧붙여 직업인으로서의 역할과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양립해야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옥희(1998)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가장장적인 권위주의 구조의 영향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어머니, 아내, 며느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에 비해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을 더 많이 느끼며, 이들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어려움은 양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이를 경험하는 계기나 상황 등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주중에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주말부부들에게는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문제 해결과 심리적 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2001). 또한 홀벌이 주말부부와 맞벌이 주말부부는 각기 자녀교육 문제와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대 등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형성되므로 이들이 시대, 친정 등 주변인들로부터 받는 도움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주말부부의 특성을 밝히거나(김경은·정옥분 1998; 김태현·박숙자 1992; 박희선 1999; 한유미 2003) 맞벌이 주말부부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Gerstel 1978; Kasinsky & Gerste 1978; 옥경희 1999; 이기숙 1999; 채옥희 1998; 허영숙 1993), 전통적인 홀벌이 주말부부와 최근의 맞벌이 주말부부의 비교를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의 취업 및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한 한편 자녀교육열 역시 매우 강하므로 맞벌이 주말부부뿐 아니라 전통적인 홀벌이 주말부부도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볼 때 홀벌이 주말부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말부부가 되는 원인이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최근 주 5일 근무의 확대와 고속전철의 개통 등 주말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든 주말부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말부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고 기초조사나 연구도 미흡할 뿐 아니라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가 주말부부로서 가

족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보육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이 시대, 친정, 이웃 및 친구들로부터 받는 양육지원과 이로 인한 갈등 경험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이들 두 유형의 주말부부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어려움을 질적인 방법을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맞벌이 주말부부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1.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2.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의 보육실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에 대한 주변인의 양육지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가 주변인의 양육지원으로 인한 갈등 경험에 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어려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3세에서 8세까지 유아기 자녀를 둔 주말부부 어머니 87명이다.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범위를 엄격히 통제할 경우 주말부부라는 특수한 연구대상을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반대로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을 제한하

지 않을 경우에는 연령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Rabe 2001)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험과 어려움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말부부 집단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김은경 1999; 박희선 1999; 이기숙 1999; 채옥희 1998; Gerstel & Gross 1984; Goldberg & Meitz 1985)과 같이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떨어져 지내는 생활을 3개월 이상 지속한 부부로 한정하였으며, 이중 57명은 홀벌이 주말부부이고 30명은 맞벌이 주말부부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주말부부의 일반적 특성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에 선행연구들(박주영 2000; 박희선 1999)을 참고로 하여 주말부부 관련 변인 및 자녀양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말부부가족의 가족구성원의 연령, 성별, 자녀수, 결혼 년수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말부부를 지속한 기간, 주말부부가 된 동기 및 부인의 취업 동기, 근무 시간, 자녀와의 연락 빈도, 자녀와의 방문 빈도, 방문의 규칙성, 시가 및 친정과의 거리 및 지원 등 주말부부 관련 변인, 대리양육 유형, 대리

Table 1. Sample's characteristics

		(N=87)	
Variable	Category	Traditional commuting N(%)	Dual-career commuting N(%)
Mother's age	less than 31	10(17.6)	4(13.3)
	age of 31-35	24(42.1)	11(36.7)
	age of 36-40	16(28.1)	11(36.7)
	more than 41	7(12.3)	4(13.3)
Mother's education	below highschool	24(42.1)	3(10.0)
	junior college	5(8.8)	2(6.7)
	university	28(49.1)	15(50.0)
	graduate school	0(0.0)	10(33.3)
Mother's job	skilled or professional	0(0.0)	17(56.7)
	non-skilled	0(0.0)	13(43.3)
	unemployed	57(100.0)	0(0.0)
Family Income per month	less than 1.5 million won	4(7.8)	0(0.0)
	1.5 - 3 million won	20(39.2)	6(20.0)
	3 - 4.5 million won	8(15.7)	8(26.7)
	4.5 - 6 million won	6(11.8)	11(36.7)
	more than 6 million won	3(5.9)	5(16.7)
Number of children	one	14(24.6)	9(30.0)
	two	38(66.7)	18(60.0)
	three or more	5(8.8)	3(10.0)
Location	big city	31(54.4)	3(10.0)
	small city	16(28.1)	18(60.0)
	rural	10(17.5)	9(30.0)

양육비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다.

## 2) 양육지원 및 갈등

본 연구에서 양육지원은 시집, 친정, 이웃/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양육지원을 말하며, 김영희(1996)의 척도 중 정보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정보적 지원은 아동발달이나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도구적 지원은 실제로 필요할 때 자녀를 직접 돌보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지원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6점-30점의 범위를 갖는다. 또한 주말부부 어머니들이 이러한 양육지원으로 인해 지원 제공자와 갈등을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게 하였다.

## 3) 양육어려움

주말부부로서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자녀에게 느끼는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된 최근의 사건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였다.

## 3. 연구절차

주말부부가 혼치 않을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주말부부는 더욱 드물어서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연구대상을 표집 하였다. 첫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통하여 학부모 중에 주말부부 어머니를 구했다. 둘째, 주말부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예, 대학)에 근무하는 연고자를 통해 주말부부 어머니를 소개받고, 그 어머니로부터 또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스노우볼(snowball) 방식을 사용했다. 셋째, 주말부부 인터넷 동호회(daum의 '주말부부이야기', Zubu21의 '주말부부방', iloveschool의 '주말부부모임')를 통해 주말부부 회원들에게 연구 참여를 부탁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정된 연구대상에게 질문지를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원이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한 경우 회원 탈퇴나 주소변경 또는 미개

봉 등이 매우 많아 회수율을 산출하기 어려웠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1은 카이검증, 연구문제 1-2는 교차분석, 연구문제 2-1은 평균, 표준편차, 연구문제 2-2는 상관관계, 연구문제 3은 질적 분석을 이용했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의 일반적 특성

#### 1) 가족관계 유지 특성

Table 2는 87명의 주말부부 가족을 홀벌이 주말부부와 맞벌이 주말부부 등 주말부부 유형에 따라 일반적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자녀가 동거하는 부모는 홀벌이 주말부부의 경우에는 100% 어머니였지만, 맞벌이 주말부부에서는 아버지와 동거하는 사례도 4건(13.3%)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2=8.41, p<.05$ ). 주말부부가 떨어져 사는 거리는 주말부부 집단간에 큰 차이는 없었고, 전체 주말부부의 절반 정도가 2시간 이내에 살고 있었고, 4시간 이상 먼 거리에 떨어져 사는 경우도 10%가 넘었다. 이동주체는 대부분 남편이지만 남편과 부인이 번갈아 이동하거나 부인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홀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부인이 이동하는 경우는 소수(2건, 3.5%)에 불과했으나 맞벌이 주말부부는 부인이 이동하는 경우도 상당수(8건, 26.7%) 있었고( $X^2=11.03, p<.01$ )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또한 부인이 이동하는 사례는 모두 교육문제로 자녀가 아버지와 대도시에 거주하고, 부인은 지방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였다.

방문빈도는 전체적으로 주 1회(44.8%)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 2회 이상(29.8%)이었으나 월 1회 이하(6.9%)도 소수 있었으며, 홀벌이 주말부부와 맞벌이 주말부부 모두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방문지속 기간은 전체 주말부부의 2/3가 1회 방문 시 2일을 며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wo types of commuting family

		Traditional commuting N(%)	Dual-career commuting N(%)	Total
Cohabitation with children $X^2=8.41^*$	mother	57(100.0)	26(86.7)	83(95.6)
	father	0(0.0)	4(13.3)	4(4.6)
Distance $X^2=1.92$	2 hours or less	28(49.1)	16(53.4)	44(50.6)
	2-3 hours	16(28.1)	6(20.0)	22(25.3)
	3-4 hours	5(8.8)	4(13.3)	9(10.3)
	4 hours or more	8(14.0)	4(13.4)	12(13.8)
Visitor $X^2=11.03^{**}$	husband	49(86.0)	18(60.0)	67(77.0)
	wife	2(3.5)	8(26.7)	10(11.5)
	both	6(10.5)	4(13.3)	10(11.5)
Frequency of visit $X^2=.50$	below once in a month	4(7.0)	2(6.7)	6(6.9)
	2-3 times a month	11(19.3)	5(16.7)	16(18.4)
	once a week	24(42.1)	15(50.0)	39(44.8)
	2 or more per week	18(31.6)	8(26.7)	26(29.8)
Duration of visit $X^2=.55$	1 day	7(12.3)	5(16.7)	12(13.8)
	2 days	44(77.2)	21(70.0)	65(74.7)
	3 days	6(10.6)	4(13.3)	10(11.5)
Frequency of corresponding with spouse $X^2=4.55$	less than once in a week	1(1.8)	0(0.0)	1(1.1)
	2-3 times a week	9(15.8)	8(26.7)	17(19.5)
	4-6 times a week	5(8.8)	4(13.3)	9(10.3)
	everyday	42(73.7)	18(60.0)	60(68.9)
Frequency of corresponding with children $X^2=3.25$	less than once in a week	4(7.0)	1(3.3)	5(5.7)
	2-3 times a week	8(14.8)	5(16.7)	13(14.9)
	4-6 times a week	6(10.5)	5(16.7)	11(12.6)
	everyday	39(68.4)	19(63.3)	58(66.6)
Opinion of husband's family of origin $X^2=3.64$	extremely disagree	8(14.3)	3(10.0)	11(12.8)
	disagree	9(16.1)	6(20.0)	15(17.4)
	neutral	30(53.6)	17(56.7)	47(54.7)
	agree	2(3.6)	3(10.0)	5(5.8)
	extremely agree	7(12.5)	1(3.3)	8(9.3)
Opinion of wife's family of origin $X^2=2.72$	extremely disagree	10(17.9)	5(16.7)	15(17.4)
	disagree	16(28.6)	5(16.7)	21(24.4)
	neutral	23(41.1)	17(56.7)	40(46.5)
	agree	3(5.4)	2(6.7)	5(5.8)
	extremely agree	4(7.1)	1(3.3)	5(5.8)
Plan for ending up commuting family $X^2=4.65$	after entry of primary school	9(15.8)	2(6.7)	11(12.6)
	after entry of middle school	9(15.8)	2(6.7)	11(12.6)
	after the entry of university	3(5.3)	1(3.3)	4(4.6)
	after quitting the job	3(5.3)	3(10.0)	6(6.9)
	after changing the job	16(28.1)	15(50.0)	31(35.6)
	etc.	17(29.8)	7(23.3)	24(27.6)

\*p &lt;.05, \*\*p &lt;.01

물다 간다고 했으며, 이 역시 주말부부 두 집단 간에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배우자와의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주말부부 중 1사례를 제외하면 1주일에 2번 이상은 연락을 하고, 매일 연락하는 경우가 70%정도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맞벌이 주말부부보다 홀벌이 주말부부들이 배우자간에 연락을 다소 자주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말부부들은 자녀와도 거의 배우자만큼 자주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수단으로는 전화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100% 사용되었고,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는 가족도 각기 40%와 10%씩 되었다. 한편 배우자와는 편지로 연락을 하는 주말부부는 없었으나 자녀와 편지로 연락하는 주말부부는 2 사례(2.3%)가 있었다.

주말부부로 사는 것에 대해 시댁 및 친정의 입장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나 친정의 반대가 조금 더 심한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시댁의 입장은 남편의 직업으로 인한 홀벌이 주말부부가 된 경우와 부인의 직업으로 인해 맞벌이 주말부부가 된 경우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친정의 입장은 부인의 직업으로 인해 맞벌이 주말부부가 되는 것보다 남편의 직업으로 홀벌이 주말

부부로 사는 것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경향이 있었다. 주말부부를 그만두고 가족이 함께 살 시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맞벌이 주말부부보다 홀벌이 주말부부들이 아이가 좀 더 어릴 때 주말부부를 그만두고자 했으며, 맞벌이 주말부부들은 이와 같이 자녀를 기준으로 한 응답보다는 직장을 옮김으로써 주말부부를 청산할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2) 보육 특성

Table 3은 보육방법을 시댁 및 친정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맡기는 경우, 시댁 및 친정 식구가 집으로 오거나 아이를 그 집에 보내는 경우, 파출부 및 가정부를 고용하는 경우, 종일제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웃집에 맡기는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등 8가지로 분류하고,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이다. 주말부부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21명(24.1%)이었으며, 이는 모두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였다.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는 시댁(5.3%)이나 친정(5.3%)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맡기거나, 동거는 안하면서 시댁식구가 아이를 돌보아주는 경우

Table 3. Types of child-care two types of commuting family

(N=87)

	Traditional Commuting n(%)	Dual-career Commuting n(%)	Total n(%)
Cohabitation with husband's family of origin	3(5.3)	0(0.0)	3(3.4)
Cohabitation with wife's family of origin	3(5.3)	0(0.0)	3(3.4)
Relatives of husband	1(1.8)	0(0.0)	1(1.1)
Relatives of wife	5(8.8)	5(16.9)	10(11.5)
Employers	0(0.0)	4(13.3)	4(4.5)
Child-care center	9(15.8)	5(16.7)	14(16.1)
Neighbor	2(3.5)	1(3.3)	3(3.4)
Two types	9(15.8)	11(27.1)	20(23.0)
Three or more types	4(7.0)	4(13.3)	8(9.1)
No use of child-care	21(36.8)	0(0.0)	21(24.1)
Total	57(100)	30(100)	87(100)

(1.8%)가 소수 있었으나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 중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전혀 없었다. 그 대신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는 친정식구가 집으로 오거나 아이를 그 집에 보내거나(16.9%) 과출부 및 가정부를 고용(13.3%)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 아이를 종일제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이웃집에 맡기는 비율은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와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 간에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는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의 복수 보육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각기 27.1%와 13.3%로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의 15.8%와 7.0%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월평균 보육비용(56.40만원)이 홀벌이 주말부부(31.71만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점에서도 확인된다( $t=-.40, p<.001$ ).

2.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의 사회적 지원  
 1) 주변인의 양육지원

Table 4. Mean and SD of childcare support

	Traditional Dual career		Total M(sd)
	Commuting family M(sd)	commuting family M(sd)	
Support from husband's family of origin	2.38(1.31)	2.20(1.35)	2.32(1.32)
Support from wife's family of origin	3.30(1.35)	3.59(1.34)	3.34(1.35)
Support from friend or neighbor	3.34(1.10)	3.39(1.65)	3.36(1.01)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말부부 어머니는 시댁보다 친정에게서 양육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그리고 주말부부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시댁으로부터의 양육지원은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M=2.38)가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M=2.20)보다 더 많이 받고 있었으나 친정으로부터의 양육지원은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M=3.59)가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M=3.30)보다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받는 양육지원은 홀벌이 주말부부와 맞벌이 주말부부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2) 양육 지원으로 인한 갈등

Table 5. Correlation of child-care support and conflict

	(N=87)	
	Traditional Commuting family Conflict	Dual career commuting family Conflict
Support from husband's Family of origin	.50*	.50*
Support from wife's family of origin	.05	.02
Support from Friend or neighbor	.24	.26

\*p <.05

한편 시댁이나 친정, 이웃 및 친구로부터 제공 받는 양육지원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 주고 심리적 복지를 높여줄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인 동시에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Table 5와 같이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홀벌이 주말부부( $r=.50, p<.05$ ) 어머니와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 $r=.50, p<.05$ ) 모두 시댁으로부터 받는 양육 지원과 이로 인해 시댁과 경험하는 갈등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친정이나 이웃/친구부터는 양육지원과 갈등 경험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의 양육 어려움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와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가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나 계기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이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육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났다.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은 육아와 직업이라는 이중적 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이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죄책감을 경험하는 계기는 아버지의 부재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가장 많은 응답 범주는 다음과 같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을 때였고, 아이가 아버지를 찾지 않더라도 어머니 스스로 아버지가 없는 것을 안쓰럽게 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친구들 아빠는 매일 오는데 우리 아빠는 안 오셨어? 몇 밤 자면 오는데? 라고 물을 때 죄책감이 들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끔씩 아빠 사진을 보고 아빠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보인다. 그림을 그릴 때도 아빠 얼굴만 그린다.”

“아이가 엄마에게 혼나고 나서 아이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아빠가 곁에 없을 때 아이에게 부모로서 죄의식이 느껴졌다.”

이와 반대로 아이가 너무 아빠를 찾지 않아서 양육죄책감이 들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아빠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아이가 아빠를 낳아서 해서... 아빠가 외국 근무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자라서인지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아버지 부재로 인해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는 반응이 없지 않았지만, 이들 어머니들이 이러한 감정을 경험한 계기는 주로 주말부부라는 상황보다는 자신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한 상황이 더 많았다. 특히, 자녀에게 먹을 것을 잘 챙겨주지 못하거나 아플 때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잘 충족해주지 못하는 것과 숙제나 준비물을 챙겨주거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이가 열이 39도 까지 올라서 아파할 때 병원에 데려가 주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맡기고 바로 출근을 했을 때 죄의식을 느꼈다.”

“급식비를 잘 챙겨 제 때에 보내지 못해 밀렸고, 하얀 실내화가 새가망도록 신은 것을 본 순간 엄마 자격이 있나 생각이 들었다.”

“만들기, 꾸미기 등을 하자고 했는데, 출근해야 하므로 못한다고 얘기할 때 그래도 엄마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게 했다.”

이외에도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은 바깥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작은 실수에도 화풀이로 심하게 혼내고 때렸을 때 제일 미안했다.”

“너무 피곤해서 다가오는 아이에게 짜증을 냈을 때 후회가 되었다.”

“직장에 올 때 내 기분으로 인해 정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을 때 아이가 불안감을 가짐을 알 때 죄책감 비슷한 마음이 들었다.”

이와 같이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와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는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사건이나 계기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례의 대부분(5 사례 중 4 사례)이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아 양적인 면에서도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이 양육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죄책감을 느낄 정도의 사건은 없었다. 매일 같이 있지 못하더라도 매일 세 번 이상 전화통화를 하고, 토, 일요일은 온전히 아이와 같이 놀아주므로 아이는 아직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평소에 아버지의 참여가 없으므로 별 불편 없다.”

한편 주말부부 유형에 관계없이, 어머니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죄책감을 토로하고 있었다.

“학교에 행사가 많아 자주 집에 못갈 때 죄책감

같은 느낌이 든다.”

“아이들을 남겨두고 남편한테 올 때 안전사고가 걱정스럽고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든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해체되고 여성의 자립이 강조되는 새로운 풍토에서 기혼 여성의 사회참여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자녀 양육 실태와 양육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8세 자녀를 둔 전통적인 주말부부 유형인 홀벌이 주말부부와 맞벌이 주말부부가 주말부부로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이들이 이용하는 보육 형태를 알아보고, 이들 두 유형의 주말부부 어머니들이 시댁이나 친정,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받은 양육 지원과 이로 인한 갈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와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죄책감에 대해 질적인 분석을 행했다. 연구 결과 발견된 주요 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홀벌이 주말부부들은 모두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 반면, 맞벌이 주말부부들 중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Gerstel과 Gross(1982)가 지적한 바와 같이, 홀벌이 주말부부는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만, 맞벌이 주말부부는 직업적 경력이 쌓임에 따라 느끼게 되는 개인적인 만족감이 분거의 주된 동기이므로 어머니가 지방에 직장을 구했을 때 주양육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맞벌이 주말부부들에게서는 어머니가 이동의 주체인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맞벌이 주말부부는 부인이 직업을 갖고 집에서 살고 남편이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집에서 살고 부인이 이동할 것인지를 선택한다고 한 Gerstel과 Gross(1982)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이외에 홀벌이 주말부부들이 배우자와 좀 더 자주 연락을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부부가 떨어져 사는 거리나 방문 빈도 및 방문 지속일수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홀벌이 주말부부와 맞벌이 주말

부부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주말부부로 사는 것에 대한 시댁의 입장은 홀벌이 주말부부나 맞벌이 주말부부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친정은 남편의 직업으로 인한 홀벌이 주말부부보다는 부인의 직업이나 자아 실현 때문에 주말부부가 되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부모들은 며느리의 사회생활보다는 딸의 사회생활을 더 지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주말부부로 사는 것을 청산하고 가족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주말부부 자신들의 계획은 다소 상이한 경향이 있었다. 홀벌이 주말부부는 주말부부의 청산 시점을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맞벌이 주말부부는 직장 이동과 관련한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맞벌이 주말부부는 한쪽 배우자가 항상 상대방의 직장에 가까운 직장을 적극적으로 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Lamanan & Riedmann1991; Steinmetz et al 1990; Rabe 2001)를 뒷받침한다.

둘째, 맞벌이 주말부부들은 홀벌이 주말부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파출부나 가정부를 고용하거나 보육방법을 복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보육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홀벌이 주말부부보다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의 경우 시댁이나 친정과 동거하거나 시댁식구나 친정식구가 아이를 길러주는 비율이 많은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러한 경우는 홀벌이 주말부부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는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 외에도 다른 보육방법을 병행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복수의 보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다수의 보육방법을 사용할수록 보육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Shinn과 Wong(1985)의 연구로 미루어볼 때 홀벌이 주말부부보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자녀양육이 특히 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셋째,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는 친정보다 시댁에서 사회적 지원을 많이 제공 받는 것으로 나타난 김은경(2001)의 연구 결과와 반대로 본 연

구에서는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나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나 모두 시댁보다 친정에게서 양육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양육과 관련된 지원에 초점을 둔 반면, 김은경(2001)의 연구에서는 생활 전반에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든 주말부부 어머니가 친정보다 시댁에서 양육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시댁으로부터는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보다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고, 친정으로부터는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보다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는 같은 주말부부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양육 지원 주체가 달라지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한편, 이와 같이 양육 지원으로 인해 주말부부 어머니가 지원 제공자에 대해 경험하는 갈등의 패턴은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와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의 주말부부 어머니 모두 시댁으로부터는 양육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시댁과 갈등을 많이 경험하지만, 친정이나 이웃 및 친구로부터는 양육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갈등을 더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친정이나 시댁 및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맞벌이 주말부부들의 적응을 돕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은경 1999, 2001; 허영숙 1993; Rabe 2001)와 달리 지원의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와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은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이나 계기는 홀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는 주로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는 자신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았다는 결과는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이 심리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맞벌이 주말부부 중에는 무자녀 부부가 많다는 사실(Gerstel & Gross, 1982)에서도 입증되는 것으로서,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은

주말부부라는 상황 외에 직업이라는 이중적인 짐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볼 때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는 주말부부로서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전략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주말부부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더욱 큰 어려움을 갖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현대사회에서 주말부부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머니의 직업유형이나 근무시간, 근무시간의 융통성 등 취업 관련 변인에 따라 분석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후속연구에서는 주말부부 어머니와 주말부부 아버지가 겪는 양육죄책감을 비교할 뿐 아니라 주말부부를 청산한 경우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가 주말부부를 청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경은·정옥분(1998)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35-49.
- 김영희(1997)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1999)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24-44.
- 김은경(2001) 사회적 지원이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15.
- 김태현·박숙자(1992) 한국의 비동거가족연구. *가족학논집* 4, 143-160.
- 박숙자(1994) 직업과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한국가족학회편*. 서울:교육과학사 212-231.
- 박주영(1999) 주말부모의 자녀양육실태, 격리불안과 죄책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희선(1999) 주말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옥경희(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45-66.
- 이기숙(1999) 맞벌이 주말가족의 성격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23.
- 정기선(1985) 가족위기와 부부관계의 변화: 일시해외취업자 가족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채옥희(1998) Commuter Marriage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6(9), 153-166.
- 한유미(2003)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양육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75-185.
- 허영숙(1994)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dams BN(1995)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5th Ed.). Fort Worth Hare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Gerstel NR(1978) Commuter Marriage: Constraints on Spouses. NY: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SA).
- Gerstel N, Gross H E(1982) Commuter Marriages: A Review. Marriage and Family Review, 5(2), 71-93.
- Gerstel N R, Gross H(1984) Commuter Marriage - A Study of Work and Family-. NY: The Guilford Press.
- Goldberg L L, Meitz JE G.(1985) Commuter Marriage. paper presented at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al Problems(SSSP).
- Gross HE (1980). Dual-career couples who live apart : Two typ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567-576.
- Johnson SE (1986) Commuter family relationships: alive and thriv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Families Alive' Conference (7th, Ogden, UT, September 10-12).
- Kasinsky RG & Gerstel NR(1978) The Commuter Marriage within Dual-Career Families. NY: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ISA).
- Lamanna MA & Riedmann A(1991) Marriages and Families. Making choices and facing change. (4th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Rabe ME.(2001) Commuter couples: an inside story. Society in Transition 32(1). 277-291.
- Shin M, Wong NW(1985) The working parents projec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CA.
- Steinmetz, S. K., Clavan S, Stein KF(1990) Marriage and family realities. NY: Harper & Row Publihsers.